



## 신생클럽으로서 봉사에 앞장서는 서울C&C 로타리클럽

12월 13일(수) 명동 퍼시픽호텔

서울C&C로타리클럽(회장 김박미경) 총재공식방문이 12월 13일(수) 12시 퍼시픽호텔 1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순동 총재께서는 입회 3년차를 맞은 신생클럽인 서울C&C 로타리클럽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와 회원증강을 치하하였으며, 상담심리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클럽으로서 특성을 살려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Family Together' 을 회원증강을 추진하자는 말씀과 회원구성과 운영에 대한 철학을 회원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C&C 로타리클럽은 2016년 2월, 서울중앙RC의 스폰서로 창립하여, 신생클럽임에도 지난 2년여간 상담 코칭 전문가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지난해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학대아동 돌봄을 지원하는 봉사프로젝트를 1지역, 6지역 공동 사업으로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회기에도 3지역과 6지역의 공동프로젝트로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사직로타리클럽, 새해 첫 주회, 로타리안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찾다

1월 10일(수) 명동 퍼시픽호텔



2018년 무술년 새해 1월 10일(수)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 첫 주 회모임에 3650지구 동곡 이순동 총재님을 모시게 되서 우리 서울사직로타리클럽(회장 최홍진) 회원들은 많이 행복했습니다.

2017-18년도 회기의 절반을 보내고 나서 마치 중간점검을 받아 보는 느낌이었고, 결과는 이순동 총재님의 탁월하신 리더십에 비교적 잘 발맞추어 왔다는 자부심이 들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3년차이신 한 회원님이 총재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이제야 비로소 로타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말씀은 이날 조찬의 백미였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부족한 점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해서 총재님이 가신 후에 운영진과 주요 멤버분들이 사직로타리클럽 발전과 각 회원님들의 보람과 만족을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는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순동 총재님! 2018년도 3650지구의 수장으로서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pride of 3650 종주지구' 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직로타리도 제 위치에서 '초아의 봉사정신' 을 갖고 묵묵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글. 서울사직RC 회장 최홍진

